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의 현황

이광숙*

1.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개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eutsch als Fremdsprache, DaF)라는 개념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수업에서 유래하며 독일어를 모국어¹⁾가 아닌 외국어로 가르치는 언어수업에 적용되었다. 이 언어수업에 국한된 개념이 학문 연구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독일 대학 내에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가 생기게 되었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는 독일어와 독일어권 문화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며 이를 연구하는 독자적인 학과이다. 이 학과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독일대학 내에 정착하게 되었고 독어독문학, 일반언어학, 문학, 언어 교수법, 교육학, 학습심리학, 문화와 지역학, 사회학 등 인접학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학과가 전통이 깊은 독일 대학²⁾ 내

* 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

- 1)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 북부 티롤지역, 벨기에 일부를 포함하는 독일어권에서 대략 9천만이다. 그리고 동부유럽, 남·북미주 등 독일어권 외에서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대략 천만이다. 총 1억 인구가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셈이다. 독일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에 대략 4천만에 달한다.
- 2) 독일 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하이델베르크대학으로 1386년에 설립되었다. 독일어권 내에서는 1348년 설립된 프라그대학이 가장 오래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빈대학으로 1365년 설립되었다.

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는 기존 독어독문학과와의 저항을 비롯하여 많은 난관을 겪었다(Wierlacher, 1975: 119~136).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는 전통이 있는 독어독문학(Germanistik), 특히 외국 독어독문학(Auslandsgermanistik)과 연구대상과 관점의 측면에서 자주 비교된다.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근거로 독일 내에서 독일어에 관해서 주로 이론 교육과 연구를 하며, 외국 독어독문학과는 이 이론 교육과 연구를 외국에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에서는 독일어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이 교육에 필요한 학문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 교육과 연구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 자신의 언어, 문화, 사회 분야 등이 고려된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이외에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Deutsch als Zweitsprache)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독일 내에서 독일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erwerben)³⁾경우를 말한다. 이 때에 학습자는 모국어를 제1언어로 그리고 독일어를 제2언어로 일상 의사소통에 사용하며 독일내의 소르비아족, 크로아티아족 등 소수민족과 또한 동유럽 등에서 온 이주자들이 독일어를 습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독일어(Deutsch für ausländische Arbeitnehmer)라는 개념이 있다. 이 분야는 독일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어 수업을 받는 것과 연관되며 사실상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 설립에 많은 동기를 마련한 셈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 자녀에게 가르치는 독일어 수업 상황,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를 학

3) 일반적으로 습득과 학습(lernen)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학습은 학교를 위시한 공적이나 사적 기관에서 체계적으로(gesteuert) 언어를 배우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습득은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어떤 통제없이(ungesteuert) 언어를 배우는 경우이다.

문적으로 연구하는 동기가 마련되었다. 제2 언어로서의 독일어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독일어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 포함되고 있다.

70년도 이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Deutsch für Ausländer)라는 용어가 있었으며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보다 좁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는 외국인뿐 아니라 독일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확대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독일인이 독일 이외의 나라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게 될 경우, 또는 독일내에서 외국인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거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상담할 경우 독어독문학보다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가 더 유용할 것이다. 이들 개념의 변천은 독일어 교재의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60~70년도 이전에 발간된 독일어 교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예: Griesbach/Schulz 1955,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 반면에 근래의 교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예: Braun/Nieder/Schmoe, 1978: Deutsch als Fremdsprache).

2.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역사

독일에서 외국어수업은 중세에 개인적으로 행해진 언어수업에서 시작하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도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16세기에 외국어 수업이 행해졌으나 당시 외국어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고전 언어에 제한되었다. 영어, 독어, 불어 등 현대 외국어는 음악, 승마, 펜싱 같은 기술의 한 분야로 간주되어 학교의 공식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현대 언어가 고전 언어와 동등한 취급을 받

가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신인문주의(Neuhumanismus) 시대에 인격형성교육(Formale Bildung)⁴⁾이 인정되면서 프러시아에서 1831년에 프랑스어, 1901년에는 영어가 학교수업의 필수과목이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외국에 있는 독일학교, 베를린 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과(Deutsches Institut für Ausländer) 또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의 전신인 독일 아카데미(Deutsche Akademie)를 중심으로 독일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 교육은 국수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나치스 시대 더욱 강화되었고 2차 대전 후에 사라지게 되었다.

1951년 바드 라이헨할(Bad Leichenhall)에 독일 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되고 이 문화원이 1952년 뮌헨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독일의 다른 지역뿐 아니라 외국에도 문화원이 생기게 되었다. 1950년, 60년대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 가족의 증가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터키,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은 독일에 살거나 또는 정착하기 위해 독일어를 배우게 되었다. 이들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독일어 강좌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문법 전달 이외에 언어교수법, 심리학, 사회학 등과 연관된 내용을 요구하였다.

1960년 이래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더불어 외국인 학생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 학생들은 대학의 어학과정이나 독일 문화원 또는 사립 학원에서 독일어를 배우게 되었다. 외국인 학생들은 독일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어 어학시험(DSH)⁵⁾을 통과해야 하며 대부분

4) 빌헬름 폰 훔볼트(1767~1835) 등이 주장한 교육의 이념으로 학교 교육은 인격 형성을 위한 것이다. 이 이념에 의한 학교교육은 지식을 위주로 하였으며 외국어 교육도 문법을 중심으로 고전 번역 등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외국어교육에서 문법번역 방법이 성행하였다.

5) Deutsche Sprachprüfung fuer den Hochschulzugang auslaendischer Studienbewerber이

대학에 이 시험대비를 위해 어학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60년도에 이 독일어 어학과정이 행정적으로 정비되고 독일어 어학 시험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주로 언어교육의 형태로 존재했던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가 1970년대 이래로 학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독어독문학 과정(Institut fuer Deutsch als Fremdsprachenphilologie)⁶⁾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는 독일대학에서 처음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가 출발하게 된 경우이다. 독일문화원에서는 1962년 교수법을 연구하는 부서(Arbeitsstelle für wissenschaftliche Didaktik)가 생기게 되고 1971년에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교육하고 연수하는 부서가 설립되었다(Zentrale Ausbildungsunterrichtsstätte)⁷⁾.

70년대 말부터 여러 대학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과정이 설립되었고, 정교수자리가 생김으로써 독일대학 내에서 학과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1978년 뮌헨대학을 위시하여 아우그스부르크, 바이러이트, 빌레펠트, 보훔, 함부르크, 카셀, 뉘른베르크, 자르브뤼켄 등 대학에 강좌가 생기고 교수진⁸⁾이 초빙되었다.

나 1995년 이전에는 PND(S(Prüfung zum Nachweis deutscher Sprachkenntnisse)이었다. 외국인이 독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어학시험이다.

- 6) 이 과의 전신은 하이델베르크대학 통역학부의 독어과이었다. 이 독어과에 독일어 디플롬과정(Sprachdiplom)과 외국에서 독일어 교사자격 과정(Deutschlehrerdiplom im Ausland)이 있었다. 이 독어과가 1970년 독일에서 최초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학과로 바뀌어 석사과정이 생긴 것이다. 필자가 통역학부 독어과의 독일어 디플롬, 독어교사 자격과정을 마친 후에 이 석사 과정도 이수하였다. 이 과정 초창기에 석사를 수료한 사람으로는 필자 외에 타이랜드의 페터슨과 타이완의 탕샤오리가 있다.
- 7) 각 국에 있는 독일문화원의 어학과정을 위한 교사양성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뮌헨 본부에서 2년 과정으로 실행되었다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1년 과정으로 기간이 단축되었다. 현재는 이 과정이 없어지고 각 국의 독일문화원에서 자체 교사양성을 하고 있다.
- 8) 독일대학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교수(Ordinarius)만이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할 수

동독에서는 1956년 라이프치히 대학에 외국인의 학업을 위한 부서 (Institut für Ausländerstudium)가 마련되고 이 부서가 1961년 헤르더 연구소(Herder Institut)로 개칭되었다. 1969년 라이프치히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담당 헬비히(Gerhard Helbig) 교수가 부임하고, 1964년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잡지가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동독 대학에서 독자적인 학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9년 통일이 된 후에 예나, 라이프치히, 베를린(훔볼트 대학), 로슈토크, 켐니츠/쯔비카우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학과 과정이 생기게 되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분야의 발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1970년대에 후리부 대학에 독일어과(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가 생겨 유럽의회(Europarat)의 언어정책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분야가 1990/91년에 그라츠 대학 학과과정으로 생겼으며 1993년에는 빈 대학, 그리고 1995년에는 그라츠 대학에 정교수가 채용되었다.

3.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

1) 학과 과정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는 독일 대학⁹⁾ 내에서 독자적인 학과로 존재

있다. 정교수는 박사를 한 후에 대학에서 보조교수(Assistent)로 강의를 몇 년 한 후에 정교수과정(Habilit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정부에서 발령이 나와 정교수로 불리우게 된다. 정교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박사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독어독문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학과의 명칭은 독일 각 대학 해당 학과에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2언어로서의 독일어', '상호문화 독어독문학(Interkulturelle Germanistik)', '외국인 또는 이주민 교육학(Ausländer-oder Migrationspädagogik)', '상호문화 의사소통(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등 다양하다. 교과과정¹⁰⁾은 교사국가고시(Lehramtstudien), 석·박사 과정(Magister-und Doktorkurs)의 정규과정이며, 대학에 따라서 추가과정이 되기도 한다. 2001년 11월 현재 인터넷 <http://www.hochschulkompass.hrk.de> stichwort: Deutsch als Fremdsprache에 따르면 17개 대학에서 교사국가고시와 석·박사 과정(주로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추가과정은 이들 대학을 포함한 19개 대학이 제공하고 있다. 이 학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빌레펠트와 뮌헨 대학에서는 이 학과에 정원 제한(Numerus Clausus)¹¹⁾

-
- 9) DAAD에서 발간한 1999년도 독일에서의 학업(Studium in Deutschland, 8페이지)에 의하면 독일 전 지역에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을 포함하여 대략 350개 대학에 163만 명의 대학생이 있다. 이 중 외국인 학생수는 대략 16만 명에 해당한다.
 - 10) 독일 대학의 교과과정은 디플롬, 마기스터, 국가고시, 박사과정으로 되어 있다. 일부 과에서는 영미권식으로 베첼러과정, 마스터과정이 새로 생겼다. 일반적으로 이과, 공과, 사회, 경제계열에는 디플롬 과정이 있고 인문계와 사회계열 일부에서 마기스터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학교 법원 등 국가기관이나 의사, 약사, 법학도 등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직업을 가지려면 국가고시를 보아야 한다. 국가고시는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되어있고 1차 시험 후에는 1~2년 간 실습기간이 있다. 이 실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2차 시험을 치룰 수 있다. 박사과정은 전 계열에서 제공된다.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일정한 명칭(Doktorvater, Doktormutter)이 있고 구술시험은 리고로쎄(Rigorosum)이라고 한다. 언급된 과정들을 이수하려면 주전공 두 과목 또는 주전공 한 과목과 부전공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학위를 받으려면 주전공에서 논문을 써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주전공에서 필기고사, 주전공과 부전공에서 구술고사를 치루어야 한다.
 - 11) 대부분의 독일 대학은 국립이며 대학 입학은 각 대학이 관리하지 않고 도르트문트에 있는 대학 입학 중앙 부처(Zentralstelle fuer die Vergabe von Studienplaetzen, ZVS)에서 관리한다. 의과, 심리학과, 생물과 등 실험이 필요한 학과에서는 실험실의 자

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국가고시 과정의 이수기간은 4~5년, 석사는 최소 4년, 박사는 2~5년이다. 추가과정의 이수기간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며 정규과정보다 짧다.

2) 학과의 내용

이 학과의 전문 영역(전공분야)은 어학, 교수법, 문학, 지역학 4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어학과 교수법이 문학과 지역학보다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어학 총서시리즈 HSK에 외국어로서 독일어¹²⁾ 분야는 2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1권은 어학, 2권은 교수법, 지역사정과 문학을 다루고 있으며 이 4영역 중 어학과 교수법이 광범위하게 취급되고 있다.

(1) 어학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에서 어학에 관한 교육과 연구는 독일어의 통시적 고찰보다는 공시적 고찰¹³⁾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학 분야에는 고대 독어, 중세 독어보다는 현존 독일어의 체계와 언어사용에 연구

리 때문에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 12) Handbuecher zu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시리즈로 19.1과 19.2의 2권이 외국어로서 독일어에 관한 것이다. 이 시리즈에 한국에 관한 글로 두 논문이 실려있다. 어학분야(1권)에서 필자의 한독비교논문(Kontrastive Analysen Deutsch-Koreanisch, pp.463~470)과 지역학분야(2권)에서 그뤼너트씨의 한국의 독일어수업(Deutschunterricht und Germanistikstudium in Korea, pp.1575~1579)에 관한 논문이다.
- 13) 언어의 통시적 고찰은 어원론 등 언어의 시대적인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며 공시적 고찰은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의 언어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학과의 4전공분야에는 독어독문학¹⁴⁾에서 취급하는 중세학(Medievalistik)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언어체계에서 음운, 문법 및 언어구조, 어휘,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음성학, 음운론에서 이론과 더불어 독어와 다른 언어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그리고 문법, 어휘 사용에서는 오류분석, 진단, 수정 등이 논의된다. 의사소통할 때에 독일어와 학습자 언어의 관습, 문화적 배경의 차이점이 다루어진다. 수업에 실용론과 인지이론이 응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어학분야의 연구 중 언어학 발전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제2언어습득이론, 사회언어학, 비교언어학, 독일어 문법이론 중 결합가이론을 근거로 한 학습자 중심의 문법연구를 들 수 있다.

(2) 교수법

이 분야에서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교재, 수업 형태와 방법, 사회적, 제도적 조건, 교과과정 등 다양한 요인이 교육과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제2언어습득과 외국어학습에 집중되어 있다. 80년대와 90년대 이후 이 분야에서 자주 강조되는 것은 학습과정이 교사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자율성, 자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언어습득 연구에서는 영어습득 이후의 독일어 학습상황과 효과적인 독일어 전달 방법이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어습득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관계(Interaktion)와 인지이론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 독어독문학의 전공 분야는 어학, 문학, 중세학으로 나뉜다.

언어습득의 평가와 기준, 평가를 위한 시험문제와 문제 유형에 관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방법론과 수업 보조자료의 개발, 교재의 분석과 평가, 학습자 출신 지역을 고려한 교재의 개발, 교사교육과 교사 재교육도 이 분야의 과제이다.

(3) 지역학

지역학의 내용에서는 독일어권의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지리, 정치, 문학분야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 90년도에는 지역학의 내용이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ABCD-Thesen). 그러나 지역정보에 관한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과 학습자 국가의 제도, 언어, 문화면에서 비교를 함으로써 문화와 사고의 차이, 독일어나 독일인, 독일에 관한 전형적인 인상 내지 상(Deutschlandbild)과 편견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

중국, 아프리카등 제3국에서는 독일과 기술분야의 협력관계가 밀접한 이유로 경제분야에서 독일어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독일어(Wirtschaftsdeutsch)라는 개념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독일어 전문용어의 교육과 연구와 독일 전문용어의 교재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문학

70년대 이후 언어수업의 목표가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실용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문학텍스트는 도외시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는 무엇보다

다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언어교육의 목표에 언어습득 뿐 아니라 문화의 이해도 포함된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을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고 문학작품은 학생들의 동기유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교재에 문학작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특히 상호문화 교수법에서는 문학작품을 가능한 저학년에서부터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문학작품이 언어습득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정보에 관한 정보를 넓혀주며 무엇보다도 수업을 흥미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분야에서는 문학작품의 이해를 넘어서서 자유로운 창작활동도 할 수 있게끔 동기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학분야에서 문학이론과 텍스트언어학, 언어교수법을 구체적으로 수업에 적용하는 시도가 아직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어수업에서 문학작품을 다루게 되면 문학작품의 선정이 불가피한데, 이 때의 문학작품선정은 학생들의 수준, 연령 또 학과의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독일어로 된 문학작품이 시대와 작가, 장르별로 방대함을 고려해 볼 때 독일문학의 개괄을 위해서 대표적인 작품이 선정되어야 한다. 독일문학작품의 수용문제와 학습자 언어의 문학작품과의 비교도 다루어 질 수 있다. 이 때에 독일인의 작품뿐 아니라 외국인이 쓴 독일어 작품, 예를 들어 이민자 문학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어와 학습자 언어의 문학작품 비교를 통해 언어,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를 알게 되고 문화 상호간의 이해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이 단단해 질 수 있다.

4. 관계기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관계기관으로는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독일

학술교류처(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외국주재 독일학교 담당기관(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 대학의 해당 학과와 어학과정, 칼 뒤스베르크 센터(Carl Duisberg Zentren), 오토·베네케 재단(Otto-Benecke Stiftung), 시민대학(Deutscher Volkshochschulverband),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 사립학원 등이 있다. 이 모든 기관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가 학문의 한 연구분과 내지 대학의 한 과로 정립되는데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독일문화원 본부는 뮌헨에 있으며 독일 내의 문화원은 어학과정을, 외국주재문화원은 어학과 문화를 담당한다. 1991년 통일 후 독일 내 문화원에서 외국인 수강생 수는 25,000에 달한다(Helbig u.a., 2001: 84). 문화원은 뮌헨대학, 시민대학과 더불어 독일어 교재 편찬, 시험 주관, 외국인교사 연수를 담당한다.

베를린의 독일학술교류처는 세계 각 처의 대학에 독일 전문인을 파견하고 외국인 교사 연수를 담당하며 외국인 교수를 연구차 초빙한다.

켈른의 외국주재 독일학교 담당기관은 외국에 있는 독일학교에 교사를 파견한다.

언급한 대로 1960년대 이래로 외국인 이민자와 이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민자를 위한 성인교육과 그들 자녀를 위한 학교교육을 위한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였으며 1974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독일어협회(Sprachverband — Deutsch für ausländische Arbeitnehmer e. V.)가 설립되었다.

1971년에 독일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강좌와 학과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과(Arbeitsstelle Deutsch als Fremdsprache)가 생겼으며, 이 조직은 1973년 이후 독일학술교류처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고 현재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협회(Fachverband Deutsch als Fremdsprache, FaDaF)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다.

독일대학, 문화원, 독일학술교류처는 1974년 이후 전문인을 위한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독일연구처(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는 1983년부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독어교사협회(Internationaler Deutschlehrerverband)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5. 저서 및 전문잡지

여러 유명한 잡지들의 발간, 학회활동, 단행본 간행 등이 이 분야의 끊임없는 발전을 대변한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 관한 입문서가 꾸준히 간행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Ehnert(1989), Ickler(1984), Strauss(1984), Henrici(1986), Heyd(1990), Storch(1999), Hunecke/Steinig(2000) 등이 있다.

1930년부터 1948년까지 발행된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수업(Deutschunterricht für Ausländer)'이라는 잡지는 1970년에 '목표어 독일어(Zielsprache Deutsch)'로 바뀌었다.

1974년 이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정보(Informationen DaF)'가 발간되고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자료(Materialien DaF)',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연감(Jahrbuch DaF)'도 1975년 이후 계속 출판되고 있다. 구동독 라이프치히의 헤르더 연구소에서 1964년에 시작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eutsch als Fremdsprache)' 잡지는 통독 후에도 계속 간행되고 있다.

이들 잡지 외에도 '독일 외국어(Fremdsprache Deutsch)', '외국어로서의 독일어(Werkstattreihe DaF)',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관점(Perspektiven Deutsch)',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협회에서 발간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현황(FaDaF Aktuell)', 현대 외국어 협회(Fachverband Moderne Sprachen)에

서 발간하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과(Fachgruppe Deutsch als Fremdsprache)’가 있다.

‘독일어 배우기(Deutsch lernen)’란 잡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수업을 위한 잡지이며 교수법에 관한 정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영역에 대한 문서도 포함되어있다. 그 밖에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인쇄물로서는 독일문화원의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수업 자료(Arbeitsmittel für den Deutschunterricht an Ausländer)’, 사회사업과 사회교육학 연구소(Institut für Sozialarbeit und Sozialpädagogik)에서 나온 ‘외국인 관계 정보 부서(Informationsdienst zur Ausländerarbeit)’ 등이 있다.

2001년 출간된 ‘언어학과 의사소통학 총서 Handbücher zu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시리즈 중 2권(19.1과 19.2)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다루고 있다.

6.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의 전망

1989년 이후 동유럽이 개방되고 유럽 공동체(EU)가 확장됨에 따라 독일어는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동유럽에서 제 1외국어 위치를 차지했던 러시아어가 영어와 독일어로 대체되었고 독일어는 동유럽에서 중요한 통용어와 경제어가 되었다. 1990년 이후 동유럽 여러 나라가 영어 및 독일어 교사와 교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헝가리에서만 1990년에 15,000명의 영어, 독어 교사 자리가 생겼다(Helbig u.a., 2001: 7)).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3국은 동유럽 지역의 언어 교육을 위해 서로 연합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서부와 남부 유럽에서는 독일 문화원이 폐쇄되는 등 독일어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이들 지역이 원래 라틴어 문화권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영어가 학문어와 경제어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독일 내에서는 90년대 이후로 외국인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또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독일 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안책을 찾고 있다. 대학입학을 위한 어학시험을 재외 공관에서 실시하는 독일어 시험(Test DaF 또는 독일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등)으로 대체하거나 대학에서 (주로 유전 공학등 새로운 학과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고 또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환경의 변화에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는 교과과정 등 제도적인 면에서 점점 확고해지고 있으며 각 전공분야의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학과가 전공내용이나 제도면에서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며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이 학과가 단순히 어학과정의 연속이라거나 또는 독자적인 연구대상,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습득, 학습자문법 또는 교육문법, 학습자언어, 교재연구, 문학교수법, 상호문화성, 문화전달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독어학과 교수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연구 대상이 독어독문학의 대상과 다를 것이 없거나 아니면 후자의 일부라며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으나 이 두 학과의 내용과 관점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독어독문학에서는 이론이 교육과 연구의 중점을 이루고, 독일어와 독일을 모국인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에 반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서는 실지 수업에서 언어습득 능력도 중시하고, 또한 교육과 연구에서 학습자 언어, 문화, 사회를 고려한다는 점이 독어독문학과 구별된다.

실지 수업과 이론의 연관관계는 독일어교재에 적용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 예를 들어 Deutsch Aktiv Neu(1987), Themen neu(1986), Sichtwechsel(1984) 등 교재에서는 의사소통교수법, 상호문화방법 등 현대 언어교수방법이론이 응용되고있다.

이 학과가 보다 더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어학과 문학분야의 연구는 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정비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예를 들어 문학과 문학교수법, 어학과 어학교수법은 각각 문학, 어학 분야로 통합되고, 지역학의 내용은 독자적인 전공 분야로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 독일어 언어습득 과정도 일반인을 위한 과정과 기술, 경제분야 등 전문어를 위한 과정 또는 통역, 번역과정 등으로 세분화되어 학습자의 요구와 이들의 장래 직업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에서도 부전공 제도¹⁵⁾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주전공으로 직업을 찾기 어려운 경우 부전공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과는 실제 수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교생)실습¹⁶⁾

15) 독일 대학의 교사국가고시, 석사, 박사과정에서는 주전공 하나와 부전공 둘, 또는 주전공 둘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학과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16) 독어독문과 학생들은 대개 주전공 하나와 부전공 두 과목을 이수한다. 교사가 되려면 이들 과목에서 교사국가고시(제1차)에 합격하고 난 후에 독일 학교에 배정이 되어 2~3년간 실습을 하게 된다. 이 실습과정 후에 다시 논문을 쓰고 시험에 통과(제2차 국가고시)하면 교사자격이 주어진다. 교사자격이 주어진 후 정부 발령을 받아야 정식 교사가 된다(몬테소리학교와 루돌프 슈타이너 학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일 학교는 국립이다). 이러한 실습과정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에서 확고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대학마다 다르게 이행된다.

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직은 이 실습의 기간, 내용,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으나 앞으로 각 대학간에 보조를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외국에서의 실습이 권장되어야 하며 이 실습에 관한 이론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전공한 이들에게 독일 내에서의 직업 전망은 좋은 편이 아니다. 독일 내의 문화원, 대학의 어학 과정, 또 국외 독일학교에서 독일독문학과와 교사국가고시를 통과한 교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전공한 이들은 대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시간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학과는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과 내용, 기간, 체재 면에서 일률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 면에서 대상, 방법, 주제 등이 지속적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 80년대 이래로 유럽내에서는 학업 인정 등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분야는 위에 언급된 취약점들이 개선된다면 보다 수준높고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다.

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제안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한국어 지도자 과정에 이어서 대학원 석, 박사 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과정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과를 참고로 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다.

우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정의 명칭과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또 이 학과 과정의 과업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언어 습득과 함께 이론 교육과 연구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이 과정의 내용은 어학, 문학, 문화, 교수법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영역 안에 다시 구체적인 과목과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실지 한국어 습득에서 언어의 4기능이 균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한국의 학습 상황과 여건을 전제로 한 교수 방법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언어 습득에 필요한 교재 뿐 아니라 문학, 어학, 교수법, 문화 영역에 필요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론 연구에 있어서는 어학 분야에서 한국어와 학습자 언어의 비교, 한국 주재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습득 및 그 과정 연구, 한국어에서의 외국어 어휘의 차용과 사용,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습득과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범하는 오류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인상, 한국인의 상, 한국인이 갖고 있는 각국에 대한 인상 등도 경험론적인 면에서 포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문학에서는 외국에 한국을 소개할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의 선정, 이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 외국어를 통한 이 작품들의 소개가 필요하며 또한 외국인들이 집필한 한국에 관한 저서, 문학 작품의 수집과 소개가 필요하다.

교수법에서는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이해 전략, 학습 전략의 개발, 한국인의 학습 전통과 습관의 연구와 외국인의 학습 방법과의 비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면에서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지역 정보(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어, 역사 등)의 개발과 교재 편찬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의 장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외국어로서 한국어 언어 습득 역사와 언어습득을 담당한 기관, 학생수, 학급수, 교사수 또 이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 등에 관한 조사가 정리되어 문서화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과정이 있는 전국 학과 담당자들과 관계기관의 모임이 학회 등의 형태를 갖추어 정기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에서는 전문잡지를 발간하여 이 분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참고 문헌

- 이광숙, 독어교육이론, 독어교육 16집 1996, 69-102.
- Ammon, U., Die internationale Stellung der deutschen Sprache, Berlin/New York 1991.
- Aufderstrasse, H./ H. Bock/W. Boenzli/W. Lohfert/ J. Mueller/ H. Mueller, Themen Muenchen 1986.
- Braun, K./ L.Nieder/ F. Schmue, Deutsch als Fremdsprache, Stuttgart 1978.
-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Hg.), Studium in Deutschland, Bonn 1999.
-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Hg.), Wissenschaft und Welttoffen, Bielefeld 2001.
-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Hg.), Deutsch als Fremdsprache an den Hochschulen und Studienkollegs in Deutschland, Bonn 2001.
-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Hg.), Wissenschaft und Welttoffen, Bielefeld 2001.
- Griesbach, H./D. Schulz, Deutsche Sprachlehre fuer Auslaender, Muenchen 1955.
- Ehnert, R., (Hg.),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s Faches Deutsch als Fremdsprache: Handreichungen für den Studienbeginn, 2. überarb. Aufl. Frankfurt/M u.a. 1989.
- Glück, H.,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als Zweitsprache: eine

- Bestandaufnahme, In: Zeitschrift für Fremdsprachenforschung 2, 1991, 12-63.
- ,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als Zweitsprache, In: Henrici, G./ U. Koreik (Hg.), Deutsch als Fremdsprache, 1994, 214-255.
- Götze, L. (Hg.), Deutsch als Fremdsprache. Situation eines Faches. Bonn-Bad Godesberg 1987.
- Götze, L./ G. Helbig/ G. Henrici/ H.-J. Krumm, Hand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In: Deutsch als Fremdsprache 32/2, 1995, 67-81.
- Gruenert, F., Deutschunterricht und Germanistikstudium in Korea, Helbig u.a.(Hg.) 2001, 1575-1579.
- Helbig, G./ L. Götze/ G. Henrici/ H.-J. Krumm (Hg.), Deutsch als Fremdsprach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2 Bde, Handbuecher zur Sprach-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Bd. 19.1u. 19.2, Berlin New York 2001.
- Henrici, G., Studienbuch: Grundlagen fuer den Unterricht im Fach Deutsch als Fremd und Zweitsprache (und anderer Fremdsprachen), Paderborn u.a. 1986.
- Heyd, G., Deutch lehren: Grundwissen für den Unterricht in Deutsch als Fremdsprache Frankfurt /M 1990.
- Hog, M./ B. D. Mueller/ G. Wessling, Sichtwechsel, Stuttgart 1984.
- Hunecke, H/ W. W. Steinig,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führung, Berlin 2000.
- Ickler, Th.,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fuehrung in das Studium, Tuebingen 1984.
- Lie, K-S., Die Situation von Deutsch als Fremdsprache in Südkorea, In: Sturm, D.(Hg.), Deutsch als Fremdsprache weltweit: Situation und Tendenzen, München 1987, 83-90.
- , Kontrastive Analysen Deutsch/Koreanisch: eine Uebersicht, in: Helbig u.a. (Hg.) 2001, 463-470.
- Neuner, G./ Th. Scherling/ R. Schmidt/ H. Wilms, Deutsch Aktiv Neu, Lehrbuch Ib, Berlin, Muenchen 1987.

- Rösler, D., Deutsch als Fremdsprache, Stuttgart/Weimar 1994.
- Storch, G.,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Didaktik, München 1999.
- Strauss, D., Didaktik und Methodik Deutsch als Fremdsprache, Berlin u.a. 1984.
- Wierlacher, A., Ueberlegungen zur Begründung eines Ausbildungsfaches Deutsch als Fremdsprache,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1, Heidelberg 1975, 119-136.

■ Zusammenfassung

Deutsch als Fremdsprache an deutschen Universitaeten

Lie, Kwang-sook

Schon seit dem Mittelalter ist Deutsch in Europa als eine fremde Sprache zu erwerben, insbesondere für den Zweck zum Handel zwischen verschiedenen Orten. Deutsch als Fremdsprache als Wissenschaftsfach oder -disziplin besteht dage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st seit 30 Jahren: das Forschungs- und Lehr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wurde 1970 zum ersten mal an der Universität Heidelberg eingerichtet, und zwar mit der Bezeichnung Institut Deutsch als Fremdsprachenphilologie. Das Fach entwickelte sich dann rasch weiter und wird nun in Deutschland ungefähr an 20 Universitäten betrieben. Außerdem sind verschiedene Institutionen und Organisationen, die sich mit Deutsch als Fremdsprache beschäftigen wie Arbeitskreis Deutsch als Fremdsprache im DAAD in Berlin oder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in Mannheim.

Im Laufe der Zeit hat das Fach in vier Wissenschaftsbereichen festen Fuß gefaßt: Sprachwissenschaft, Literaturwissenschaft, Sprachlehr und lernforschung und Landeskunde. Die Lehr- und Forschungsinhalte, die im jeweiligen Bereich behandelt werden, sind zur Zeit sehr unterschiedlich oder erscheinen sogar heterogen, was noch einer Vereinheitlichung bedarf. Trotzdem weisen die Fachbereiche eine gemeinsame Basis und Tendenz auf: sie entstammen eigentlich

aus der Praxis und arbeiten daher mit der Praxis eng zusammen. Die Untersuchungen der Theorien sollen stets die Praxis berücksichtigen und auf ihr basieren. Diese enge Verbindung von Theorie und Praxis soll den eigentlichen Charakter des Faches bestimmen und sich somit von der Germanistik abheben, die rein theoretisch und nur mit Innenperspektive arbeitet. Das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ist durch Praxisorientiertheit und Außenperspektive zu kennzeichnen.

Es ist von grosser Bedeutung, dass Studienplaetze fuer Koreanisch als Fremdsprache in Magister und Doktorstudiengaengen an der koreanischen Abteilung der staatlichen Universitaet Seoul angeboten werden. Für die Studiengaenge ist das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als Musterbeispiel anzusehen. Es ist zu empfehlen, dass Praxis und Theorie fuer die Forschung und Lehre von Koreanisch als Fremdsprache ausgeglichen werden soll. Welche Inhalte das Fach Koreanisch als Fremdsprache an koreanischen Abteilungen in Korea umfassen sollen, muss von Fachleuten und Institutionen oder Organisationen ausführlicher diskutiert werden.